

All Nations Mission Center

President
Rev. Hunn Choi
Dr. Meesaeng Lee Choi

www.anmcusa.org, anmcusa@gmail.com 859-312-2433, 2156
701 Emmett Creek Lane, Lexington, KY 40515 U.S.A
협력기관: Onnuri - OMA - TIMA - CGNTV

Refresh, 힐터 · 새롭다
Revitalize!

교회와 선교리더십 회복

LOVE & CARE FOR CROSS-CULTURAL
WORKERS AND PASTORS



선교사·목회자 돌봄과 선교연구
MISSIONARY · PASTOR CARE &
MISSION RESEARCH

올네이션스 선교센터 사명

올네이션스 선교센터는 선교의 대위임령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타문화권 선교사, 목회자, 평신도 사역자, 차세대/제3문화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기 위해 멤버케어, 한국교회와 선교연구, 리더십 개발과 재교육을 한다. 이 사명은 선교사 하나님의 사랑과 이 세상에 보냄을 받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선교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한다.

ANMC 미국

“선교사-목회자 돌봄”에 참석한 선교사-목회자-사역자들과 2019-2023년에 ANMC를 다녀간 자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예배자와 사명자로 설 수 있도록

ANMC 필리핀

필리핀 올네이션스 선교교회의 새성전과 선교훈련센터가 꾸준히 지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장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걸어가게 하시고, 주신 비전을 다 이루는데 잘 쓰임받도록, 예정된 시간에 완공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ANMC 중동-북아프리카

영적 추수기인 중동 땅에 더 많은 일꾼을 보내주시도록
난민 사역자들의 능력, 순결, 보호, 지혜를 위하여
제자훈련에 연결되는 MBB 들을 보호해 주시도록

ANMC 한국

선교센터와 지속적인 연결을 통해 중보기도와 후원이 활발히 진행되고 비전 나눔 모임이 발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ANMC News

회복의 역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한 새로운 시작 -제1부-



다음 글을 나눠주신 이창원 & 윤향희 선교사님 부부는 아들과 딸 두 자녀와 함께 온 가족이 시리아를 위한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환경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결국은 원래 받은 부르심을 좇아서 달려왔다. 건강이슈로 커다란 도전이 있었을 때 주님께서 미국 켄터키주 렉싱턴에 있는 올네이션스 선교센터의 베다니홈으로 인도하셔서 이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쉼과 회복, 재충전을 주셨다. 결국 아무도 주님이 주신 사명과 불러주신 시리아 난민사역을 멈추게 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보통은 리타이어(Retire)란 단어는 '은퇴하다'란 뜻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나는 "타이어(Tire)를 다시 간다(Re)"로 해석해보고 싶다. 이는 커멘스먼트(Commencement)에 대학졸업식과 시작이란 뜻이 함께 있는 것처럼 리타이어를 은퇴가 아닌 새 출발이란(모순) 화법으로 재해석해서 보니, 얼마 전 환갑 생일을 보낸 내게 새로운 소망이 생겨남을 느낀다.

주님은 2006년에 이사야 19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부부를 이슬람권 선교사로 부르셨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땅 시리아로 인도하셨고, 그렇게 시리아 민족을 3년 즈음 섬기고 있었다. 황무지라는 시에서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했던가! “아랍의 봄”과 함께 시리아에 내전이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 가족도 난민이 되어 국경을 넘어 요르단으로 들어갔고, 요르단에 정착하기가 무섭게 100만 명 정도의 시리아 난민이 요르단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위로가 안되어 울고 있는 난민들의 손을 잡아주며 함께 울고 함께 기도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다. 못 걷던 아이가 걷게 되고, 폐암의 고통가운데 있던 여인이 치유를 받고, 귀신에 사로잡혔던 이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 수많은 역사를 통하여 심령이 가난해진 난민들에게 천국이 임하는 것을 보는 영광을 셀수없이 누렸다. 약 6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난민들을 섬기며 9개의 가정 교회를 세울 수 있었다. 이것은 전쟁 전에는 오히려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의 광야에서 피운 아름다운 꽃들이다.

후원

한국

국민은행 : 524901-01-127780, 임혜련

미국

Check : Payable to "ANMC"

701 Emmett Creek Lane, Lexington, KY 40515

동역 후원자들

올네이션스선교센터는 복음주의적이며 초교파적인 비영리 선교단체로, 여러분의 후원으로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President

Rev. Hunn Choi

Dr. Meesaeng Lee Choi

President's Council

Rev. Jaehoon Lee

Rev. Yonyong Park

Rev. Misook Kim

Hyekyung Lee

Advisory Council

Dr. Lois Dodds (Heatstream Resources President)

Dr. Laura Gardner (Board Vice Chair, SIL Int'l)

Dr. Ron & Bonnie Koteskey (Go Int'l)

Dr. Rhonda Pruitt (Columbia International Univ.)

Board of Trustees

Inhong Cha & Sungeun Cho

Jaehyung Yoon & Sam Kim

Shinho Choi & Sinae Kang

Sojin Yoo & Misook Yoo

Taeseung David & JooYoung Yoo

Supporter

All Nations UMC

Dongtan Zion KMC

Life in Jesus Church

Onnuri Community Church

OMA-TIM-TIMA-CGN TV

Eunsun Choi & Daniel Lee

Eunsung Choi & Jinjoo Kim

Glovis Alliance Co.

Hoon & Aesook Choi

Hunn & Meesaeng Choi

R. & Grace Chung

Shinho Choi & Sinae Kang

Haekyeong Jeon

Esther Kang

Kyuwook Kang & Jaehee Kim

Peter & Jennifer Sone

Hyaerhun Yim

Taeseung David & Jooyoung Yoo

Bok Hee Youn

Duckhyun Hong & Sungryung Kim

Misook Kim

Hyekyung Lee

Seungkyo Oh

Ken & Patty Pennington

그런데 갑자기 요르단 정부에서 우리에게 비자를 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이집트로 이동하게 되었고 카이로 한인 교회를 담임하며 수단 난민과 시리아 난민들을 섬겼다. 이렇게 이집트에서 새로운 부르심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2022년 2월에 나에게 뇌경색에 뇌출혈이란 불청객이 찾아왔다.

병원 침상에서 누워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그러나 주님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처럼 기적과도 같이 완전한 회복과 치유를 베풀어 주셨다. 주님은 남은 부르심의 사명을 계속 달려가도록 내게 새롭게 신성한 건강을 베풀어 주셨다. "타이어(Tire)를 다시 간다(Re)"의 말처럼 나를 회복하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다음 뉴스레터에서 계속 됩니다.)

올네이션스 기도 제목



1. 주의 강한 능력으로 선교사들을 붙드셔서 안전하게 사역할 수 있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한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을 창의적인 방법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
2. 2023년 한 해 동안 올네이션스선교센터를 방문할 선교사-목회자-평신도 지도자들과 그 가족들이 베다니 홈에서 참 안식과 회복을 경험하고 영육간에 재충전 되도록
3. ANMC의 모든 스태프들이 선교적 영성을 살게 하시고, 각자의 삶에서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4. 협력기관인 온누리교회, OMA, TIMA, CGNTV, 올네이션스연합감리교회의 연합 사역을 통해 멤버케어와 선교 연구에 발전이 있도록